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신청기간 : 2016. 03. 14 ~ 2016. 04. 30
프로그램 수강기간 : 2016. 07. 04 ~ 2016. 07. 28
문의 : 미래문명원 02-961-0995 summer@khu.ac.kr



4월의 어느 봄날 지난 8일 오후, 중앙동아리 '경희랑 달리기' 회원들이 본관 앞 잔디밭에 모여 '본관놀이'를 즐기고 있다.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학생들로 4월의 본관 앞은 시끌벅적하다(사진=백승철 기자)

Newsmaker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에 출연한
구태근(조리·서비스경영학 2015) 군



나의 꿈,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처럼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 아침이면 모락모락 김이 나오고, 코 끝을 간질이는 알쏭달쏭한 냄새. 분주한 부엌 쪽 달그락 소리에 잠이 깨기 마련이다. 바로 어머니가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모습이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생각하면 각자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 조금 특별한 추억을 가진 '청년 셰프'가 있다. O'live TV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에 출연한 구태근(조리·서비스경영학 2015)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요리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로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꼽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각종 레시피를 찾아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어머니가 아주 편찮으셨죠.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 음식을 하곤 했는데, 그 무렵부터 요리에 자연스레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항상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요리하는 어머니의 뒷 모습에 대한 그리움과 맞물려 요리사에 대한 꿈으로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병상의 어머니는 한 번도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이 아쉬웠던 그는 'TV로나마 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듯 대학본부 측은 '재정'만을 위해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안을 일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면으로 이어짐

그의 특별한 사연도 방송에서 주목받았지만, 쾌활한 성격 역시 큰 화제가 됐다. 방송을 통해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생글생글한 웃음으로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대해 구군은 "눈이 좀 작아 이러한 별명을 얻은 것 같다"면서 "평소에도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단다. 평일에는 학과 공부와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고, 주말에는 가로수길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서 일한다. 한 달에 한 번 청소년 센터에서 재능기부로 제과제빵도 가르친다. 이러한 바쁜 삶에 대해

"좋아서 하는 요리 공부이기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며 멋쩍게 웃었다.

"요리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해외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올지 고민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 직접 현장에서 요리를 배우다 보면 깨닫고 와닿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음식에도 풍부한 맛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도전'이라는 단어에 비유했다.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조그만 두려움 때문에 떨쳐버리기 보단 한 번쯤은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던 마음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해본다.

"프라임사업, 우리의 미래 전략과 일치"

외국어대학 서울캠 이전 '조건과 합의' 충족시 고려할 수 있어

한균태 부총장·신상협 원장 인터뷰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지난 31일, 프라임사업 계획서 지원이 마감됐다. 7개 지원가능 계열 중 수도권 대형 사업에는 우리학교를 포함한 총 9개교가 지원했다. 프라임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정원조정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과 변동 및 정원조정을 예고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프라임사업은 구성원 사이에 친반 의견이 분분한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 측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까. 우리 신문은 한균태 서울부총장과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을 만나 프라임사업에 대한 대학본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두 사람은 우리학교의 프라임사업 지원 이유에 대해 '학교 발전 방향과 프라임사업의 취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총장은 "우리학교가 미래대학의 길을 열기 위해 제시한 전략에는 5개의 클러스터(단위체)가 있다"며 "프라임사업의 방향은 이 클러스터 중 '미래과학 클러스터',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므로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고, 교비를 절약해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즉,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이 취해야 할 방향이 우리학 교가 계획했던 클러스터 5개 영역 중 이공계열 2개 영역과 부합하므로, 이 2개 영역을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의 이공계 정원 확대 사업인 프라임사업은 우리학교의 미래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 본부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프라임사업 계획서에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바이오융합대학'과 '미래과학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미래융합 공학대학'의 신설이 포함돼 있다. 한 부총장은 계획서에 대해 "두 개의 클러스터를 먼저 추진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클러스터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대학본부 측은 '재정'만을 위해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안을 일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면으로 이어짐

시장 사회란 무엇인가?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⑫

이경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칼 마르크스나 제오르크 짐멜에게서 볼 수 있듯, 모든 것이 화폐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있어 왔다. 그러한 가능성이 오늘날에는 현실화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저서에서 그러한 상황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오늘날에는 생명, 정치적 기본권은 물론 사랑과 우정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웬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종래에는 화폐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던 것들이다.

시장사회란 시장경제가 단지 물질적 재화의 거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 경제는 생산을 조직하는 도구인 반면, 시장사회는 시장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일종의 생활 방식이다.

현대사회의 시장사회화는 세상의 변화와 경제학자들의 주제 이해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비시장적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들에까지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침투하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i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t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전문가 칼럼

발전과 만족의 병행 남성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7면



중간고사 일정으로 인해 다음 신문은 5월 9일 발행됩니다.